## 이소영의 '우리지역 우리식물'

# 런던의 약모밀, 황방산의 약모밀

영국 런던에서 이 글을 쓴다. 오늘은 첼시피직가든에 다녀왔다. 이곳은 1673년 설립 이래로 350여 년간 약용식물을 연구, 수집, 전시해온 식물원이다. 식물원에는 영국을 비롯해 유럽에서 이용되어온 허브식물과 약용식물 그리고 독성식물이 식재되어 있다.

식물원을 한 바퀴 돌던 중 코끝에서 낯익은 냄새가 났다. 습한 날씨에 나는 한국 장마 냄새일 거라 생각하고 이내 가던 길을 가던 중, 정원 깊숙이 들어갈수록 한국에서 맡았던 익숙한 생선 비린내가 난다는 걸 깨달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그늘 한 켠에 네 장의 흰 포엽을 가진 꽃차례가 보였다. 그것은 약모밀이었다. 런던에 오기 전까지 한국에서 매일 만나던 식물이었는데, 낯선 땅에서 다시 이들을 만나니 반가운 마음에 옅은 웃음이 났다. 낯설게만 느껴졌던 식물원이 갑자기 편안해지고 익숙하게 느껴졌다.

어릴 적부터 약모밀은 내게 익숙한 식물이었다. 내 아버지는 매년 마당의 작은 텃밭에 채소와 화훼류를 심었는데, 그 식물 목록에는 언제나 약모밀이 있었다. 아버지는 한여름이면 무성해진 잎을 수확해 머리에 바를 약을 만들었다. 약모밀은 피부와 머릿결을 곱게 만드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다.

아버지가 약모밀을 만지고 집에 들어온 날은 그에게서 시큼한 생선 비린내가 났다. 나는 그 냄새가 싫었다. 그런데 런던에 와서까지 그 냄새를 맡게 된 것이다.

약모밀은 '잎이 메밀을 닮은 약'을 뜻한다. 어두운 그늘에 주로 분포하며 일본에서는 잡초로 여길 정도로 번식력이 강하다. 이들의 강한 번식력의 힘은 뿌리줄기에 있다. 뿌리줄기가 옆으로 뻗어나가며 땅을 뒤덮는다.

언젠가 일본 여행 중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피해자의 인터뷰가 실린 잡지를 읽은 적이 있다. 폐허가 된 땅, 약조차 구할 수 없던 시대에 중학생이던 인터뷰이는 주변에 나는 약모밀 잎을 말려 달인 물을 매일 먹고 몸을 회복했다고 한다. 그의 어머니는 고름이 난 상처에 생 약모밀 잎을 찧어 발라주었다고도 한다. 폭격 피해자들은 하나 같이 약모밀에 대한 고마운 추억을 안고 있다.

일본 민간요법에서 약모밀은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상처에 바르면 고름이 빠지는 효과가 있다고 여긴다. 실제로 약모밀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이후 폐허가 된 땅에 가장 빨리 피어난 풀로 알려진다. 약모밀의 강한 생명력이 인간도 살린 셈이다.

나에게 약모밀은 너무나 익숙한 식물이기에, 이들을 특별히 아름답거나 이색적이라 느꼈던 적은 없다. 그런데 4년 전 이맘때의 계절, 전주 황방산에 오르다 산중턱에서 약모밀 꽃이 피어난 군락을 봤다. 그 모습은 산수국 혹은 찔레꽃만큼이나 아름다웠다. 산에서 만난 약모밀에서는 화단의 것보다 더욱 짙은 비린내가 났다.

약모밀은 우리나라에는 약초 재배 목적으로 도입되어 한때 울릉도에서만 분포했기에 울릉도 특산물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점점 자생지를 넓혀가고 있다.

약모밀은 전체를 약으로 쓴다. 보통은 꽃이 피면 뜯어 말려, 이것을 치질, 자궁염, 이뇨제 그리고 무좀이나 옻오른 데와 같이 피부 관리가 필요할 때 쓴다. 중국에서는 열매를 우려서 차로 마신다고도 한다. 열매는 꽃차례 형태에서 크게 변하진 않아 우리 눈에 잘 띄진 않지만 겨울까지 남아 있다.

이맘때 약모밀을 본 사람들은 네 장의 흰 잎을 꽃잎이라 생각하지만, 이것은 꽃차례를 감싸는 포엽이다. 꽃차례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네 장의 포엽이 꽃차례 주변에서 매개 동물을 불러들인다.

첼시피직가든의 약모밀은 화단 바깥까지 번식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꽃이 지는 중이지만, 이곳의 약모밀은 꽃이 만개중이었다. 약모밀은 늦봄부터 초여름까지 꽃을 피운다.

나는 지금껏 약모밀 냄새를 좋아한 적이 없다. 그동안 약모밀을 세 번이나 관찰해 그렸지만 관찰 후 이내 손을 닦기 일쑤였다. 그런데 첼시피직가든에서 맡은 약모밀 냄새는 반갑고도 향기롭게 느껴졌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일시적이며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멀리까지 와서야 깨닫는다.

그렇게 나는 약모밀을 사랑하기로 했다.

〈식물세밀화가〉

## 의료칼럼

# 여름철 무더위 온열질환을 조심하자

박 정 열
상무365한방병원 원장

전국이 장맛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오는 지역도 많은 실정이다. 무려 1시간에 150㎜의 비가 온 지역도 있어서 산사태나 홍수, 교통사고 등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시기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장마가 끝나면 바로 무더위가 시작된다. 지난 2022년에는 기온이 39도 가까이 오르면서 다양한 형태의 온열질환 환자가 다수 발생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인데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두통과 어지럼증, 근육경련, 심한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온열질환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다. 대개 체력이 약한 영유아와 노인에게는 치명적인 질환이 될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의하면 여름철 온열질환자 중 노인 환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온열질환은 크게 일사병과 열사병으로 나뉜다. 일사병은 체내 수분이 감소해 생기는 병으로 고온에 노출되어 적절한 수분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체온이 37~40도까지 상승하고 자율신경 실조가 동반되면서 심하게 땀을 흘리고 창백해진다.

땀이 나지 않으면서 생기는 열사병은 일사병보다 위중한 질병이다. 체온조절 중추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해서 열을 발산하지 못하게 되므로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상승해도 땀을 흘리지 못한다. 중추신경계의 이상이 생기면서 발작이나 혼수, 환각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열사병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 뇌부종, 급성 신부전 등의 다발성 장기손상이나 기능장애 등의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으며 쇼크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고온에 오랜 시간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35도 이상 일정 온도의 고온이 되면 야외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 기온이 35도인 상태면 지면으로부터 반사되는 열은 40도를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통해서 열을 저장해 반사, 복사하는 경우에 40도 이상의 고온이 되기 쉽기 때문에, 지속적인 작업을 하기보다는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두거나 기온이 높아지기 전 새벽이나 오전, 또는 저녁에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

작업을 진행하다가도 일정한 시간이 되면 서늘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수분섭취를 위해서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게 많은 땀을 흘리면 수분을 마셔서 흡수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맥주사를 통한 수액공급이 필요할 수도 있다.

열사병은 탈수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에 체온을 내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물에 적신 천으로 온몸을 감싸 증발 효과를 이용한 체온 내리기를 시도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얼음물에 전신을 담글 필요가 있다.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음료를 마시게 하는 것은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여름철 무리해서 땀을 많이 흘리면 기(氣)도 함께 빠진다고 설명한다. 기(氣)가 너무 빠져나가 기허증(氣虛證)이 생기면, 기(氣)와 진액(津液)을 보충해 줘야 하는데 이때 쓰이는 대표적인 처방이 바로 생맥산이다.

생맥산은 맥문동, 인삼, 오미자로 구성된 처방으로 각각 2대 1대 1의 비율로 달였다가 시원하게 마시면 기운과 진액을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다. 성분중의 맥문동은 폐를 건강하게 하고 심장의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고, 인삼은 오장육부의 부족한 기운을 보충해주며, 오미자는 땀을 멈추게하고 갈증을 해소해주는 효과가 있어 여름철 부족한 기운과 진액을 보충해준다.

## 기 고

#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의 조화

박 주 정
한국교원대 연구교수
전 광주서부교육장

지난 6월 17일에 발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중학교 3학년 학생 비율이 약 50%에 이르며, 필수적인 기초·기본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이 1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차 심화되고 있는 이러한 학력저하 현상에 대해 우려하면서 최근 각 교육청의 교육감 취임 2주년 관련 전반기 성과 분석과 후반기 청사진 등을 관심 있게 살펴보았다. 아쉽게도 지역별 학력수준에 대한 분석이나 학력저하의 심각성에 대한 대책을 찾기는 어려웠다. 학교교육의 두 축인 지식과 인성에서 인성 영역만을 중시하다 보니 지식교육이 약화되는 경향까지 나타나 우려를 더해 주었다.

한 지역의 분석 사례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행정 성과와 과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만 19세 이상의 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도민 63%가 최우선 과제로 인성교육을 꼽았다. 인성교육은 다른 교육활동 영역인 교육환경 개선(14%), 교육활동 보호(7%), 지역사회 협력(6%), 학력향상(4%)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민들의 의견에 따라 무엇보다도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경향은 이전의 여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교육부에서 2021년에 학생, 교원과 학부모 1만 12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비슷했다. 초·중·고교에서 강화돼야 할 교육으로 인성교육(36.3%), 인문학적 소양 교육(20.3%), 진로·직업교육(9.3%) 등이 높게 나왔고, 수학·과학교육(4.9%) 등에 대해서는 낮은 편이었다.

여러 조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학교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나 학력이 아니라 인성교육이라는 의견이 대세로 나타나 있다. 입시위주 경쟁교육으로 인해 인품 계발이나 도덕성 함양 교육이 약화되었다고 비판받는 한국 교육의 특수성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더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다.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는 지식보다 인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력 향상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약화시켜서라도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을 대비시키려는 관점이 사회 전반적으로, 그리고 학생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사이에도 상당히 많다. 심지어 학업성취를 강조하는 사람에 대해 교육현실을 모르는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이라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향을 실감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지식교육, 특히 기초·기본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의를 할 때마다 상당히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분명히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은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만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교육의 두 축은 지식과 인성교육이기 때문이다. 지식과 인성은 어느 한 부분을 약화시켜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을 강화시킬 수 없으며, 두 영역은 상보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인성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은 학교에서 학력향상은 불가능하고, 학력향상에 대한 교원들의 헌신 없이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은 상보적이라는 이론을 미국의 인성교육 연구 및 연수기관인 CEP의 보고서 'Smart and Good School'(2007)에서 제시한 새로운 인성교육 패러다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종래의 인성교육은 선한(good) 사람이 되도록 돕는 일에 초점을 두었지만, 새로운 인성교육에서는 현명한(smart) 사람이 되도록 돕는 일도 동일한 비중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바람직한 인성교육이란 문제행동을 줄이거나 시민의식을 높이면서 동시에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결론적으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기본학력 향상에 더 신경을 써서 모든 학생을 자신의 잠재력만큼 키워 주려고 노력할 때 학교폭력도 줄고 인성교육도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학교에 있을 때 인성교육 측면에서 만났던 많은 학생들을 새겨본다. 그들과 어느 정도 이야기가 통할 때 쯤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곤 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같은 대답을 했다. "저도 공부 잘하고 싶습니다"라고.

## 社 說

# 국립의대 용역 첫발 뗀 전남도 신속한 추진을

전남도의 최대 현안으로 수년간 논란의 대상이었던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용역 절차가 첫발을 뗐다.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을 맡은 용역기관이 그제 용역의 첫 절차인 '설립방식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설립방식 선정위원회'는 정부와 국책연구 및 보건의료·학계 등의 전문가 15인으로 구성,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 방식을 결정하는 한편 의대 설립 추천을 받지 못한 미추천 대학·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위원회는 순천시와 목포시 등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보건의료 현황과 국립의대·대학병원 설립 방향을 듣는 등 해당 대학과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설립방식선정위원회는 의대·대학병원을 어떤 방식으로 설립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과 동시에 의대가 들어서지 않는 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까지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 절차 중 첫번째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설립 방식 기본안을 마련해 도민 공청회와 여론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전남에 가장 적합한 국립의대 설립안을 도출한다. 이후 용역은 사전심사위원회와 평가심사위원 선정을 거쳐, 정부 추천대학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26년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전남도가 빨리 의견을 수렴해서 대안을 제시하면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남도는 이번 정권 내에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하게 공모 절차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만 국립의대 신설까지는 시간이 한정된 만큼 신속하되 도민들 대다수가 만족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 대한 대책은 더욱 꼼꼼해야 할 것이다.

# 말 뿐인 교통약자 편의…세심한 행정 필요하다

광주시가 올해 저상버스와 교통약자 전용 차량을 확대 도입하고 무장애 정류소, 육교 철거 등을 통해 이동 편의 개선에 나선다. 하지만 광주지역 장애인 단체들은 "시행계획과 실제 진행되는 사업 사이 일부 차이가 있다"면서 광주시가 약속한 정책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저상버스 100대와 교통약자 전용 차량 7대 추가 도입을 골자로 한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노후화된 시내·마을버스를 교체할 때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최근 광주시는 열악한 시 재정을 이유로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교통약자 편의 대책을 제시해 장애인 단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저상버스는 목표치인 100대에서 60대로, 전용차량은 7대에서 1대로 각각 줄이기로 한 것이다. 전용차량을 한 대 추가하면 법정대수인 128대를 겨우 맞추게 되지만, 저상버스는 올해 새로 교체되는 시내버스의 3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물론 그간 무장애 정류소 설치, 육교 철거 등 여객시설과 보행환경 개선에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재정을 이유로 기본적인 인권인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개선을 미루는 것은 안될 말이다. 특히 시내버스 승강장과 보도의 단차는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큰 걸림돌이라는 점에서 무장애 정류소 확대는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이동권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장벽이나 차별 없이 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권리다. 특히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그들에겐 생명과도 같다. 광주시는 추후 예산 확보를 통해 교통약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 無等鼓

### 서야 할 자리

보수 정부가 늘 반복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가 감세다.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덜 걷고, 세수가 감소한 만큼 정부 기능도 축소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말로는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고 사라지는 공공 서비스 대신 시장 논리에 의한 민간 서비스로 이를 대신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더 나아진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윤석열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을 이미 줄여줬고, 앞으로 상속세도 손질할 모양이다. 최근 계속되는 세수 결손의 원인에 대해 정부·여당은 대외 여건에 따라 법인세가 제대로 안 걷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윤 정부가 경기 하강 국면이라면 세수 확보를 위해 전면적인 비상조치를 실시해야 했지만, 지난 2년간 국세 감면액만 13조6000억원"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경기 상황과 어긋나는 재정 정책을 펼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에 올해보다 더 심한 긴축 재정에 나설 기세다. 이는 결국 중산층 이하 계층, 지방의 어려움을 보다 가중시킬 전망이다. 감세와 작은 정부 기조는 부유층, 수도권에는 이익이 되는 반면 그 나머지에게 크나큰 고통만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는 100대 기업 가운데 84곳이 수도권에 있다. 종부세 지난해 납부자 상위 1%(4951명)가 납부한 금액은 2조8824억원이며, 이는 전체의 68.7%에 해당한다. 대부분 수도권에 근거지를 둔 기업, 부유층은 좋아하겠지만, 지방교부세의 주요 재원인 법인세와 종부세가 급감하면서 가난한 지자체들의 재정난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압축성장을 했다. 미약한 국력의 집중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시켰으며, 그 결과 짧은 시간에 그 어떤 국가도 이루지 못했던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성과가 대단한 만큼 부작용도 상당하다.

지방 소멸, 부의 양극화, 인구 감소 등이 대표적이다. 아마도 시장 논리에 맡긴다는 말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한 개입과 중재를 포기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정부가 아직도 자신들이 어디에 자리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윤현석 경제·행정 부국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편집국안내 |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
|---|---|---|---|
|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61 |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
| 정치부 220-0652 | 예향부 220-0692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
| 경제부 220-0663 | 사진부 220-0693 | | |
| 사회부 220-0664 | 체육부 220-0697 | | |
| 전남본부 220-0680 | | | |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